

완도 수산물 세계로 뻗어간다

군, 국제엑스포서 미국 등과 500만달러 수출 협약 베트남 등과 협약 맺고 동남아 시장 진출도 본격화

완도군이 완도 수산물의 세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완도군은 국제수산물엑스포에서 500만 달러대 수출협약을 따냄에 이어 동남아시아 국가로의 판로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

완도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아시아 3대 수산 종합 전문 전시회인 '2022 부산 국제수산물엑스포'에 참가해 국내 3개 기업이 미국, 대만 소재 기업과 총 530만 달러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군은 엑스포에서 수산물 홍보 및 판매를 위해 관내 7개 기업과 함께 공동 홍보관을 운영했으며 국내 MD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회,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네이비 라이브 방송 특별 판매 등에도 참가했다.

특히 완도사랑S&F와 해성인터내셔널, 해정정 등 3개사는 미국과 대만 소재 기업과 수출 협약 3건(총 530만 달러)을 체결하였고, 올해 안에 전복, 광어, 해조류 가공품 등이 수출될 수 있도록 협의에 들어갔다.

공동 홍보관 운영에 참가한 7개 기업은 완도사랑S&F, 해성인터내셔널, 해정정, 완도세계로수산, 완도다어업회사법인, 대한물산, 누리전복영

어조합법인 등이다. 7개 기업에서는 전복 볶음밥, 광어죽, 해초 샐러드, 전복 차우더, 전복감바스, 해초국수, 전복장, 절편 전복 등 전복-해조류 가공품을 선보였다.

공동관 외에도 지역 15곳이상의 기업 및 단체가 개별 부스를 운영하고, 한국전북산업연합회에서 활전복을 판매하며 완도 수산물을 홍보했다.

아울러 완도군은 동남아 국가와의 협약을 맺고 동남아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4일 완도군청에서 유한회사 해림수산, 베트남 미그룹과 완도 수산물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우철 완도군수와 해림수산 차영심 대표, 베트남 미그룹 단민 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정정바다 완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베트남에 원활히 수출될 수 있도록 하고, 베트남에서 완도 수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데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신우철(가운데)완도군수가 최근 유한회사 해림수산, 베트남 미그룹과 완도 수산물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

미그룹은 베트남 하노이, 호찌민에서 최고급 대형 해산물 레스토랑을 다수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한국에서 전복, 굴, 광어 등 10억 원 규모의 수산물을 수입했다.

한편 지난 9월 20일에는 해림수산과 베트남 미그룹은 2023년도에 200만 불 상당의 완도 전복과 광어를 공급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베트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완도 수산물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여 수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목포시, 조선업 인력난 해소 돕는다

취업자 이주정착금·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 등 지원

목포시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조선업계를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목포시는 신규취업자 이주정착금, 고용유지 지원금,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인력난 해소에 나섰다

신규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사업은 타지역에서 목포시로 전입해 관내 조선기업에 신규 취업한 근로자에 대해 월 25만원씩 4개월간 지원한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는 사업주에게 사업주부담금을 근로자당 월 최대 21만원씩 4개월간 지원하는 정책이다.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 지원사업은 국내 조선업 관련 기업의 퇴직자가 목포시 조선업 신규취업 시

월 25만원씩 4개월간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지원신청은 목포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의 신청서식을 작성해 목포시 지역경제과에 방문·제출하면 되고, 지원대상자는 적합대상자 중 선착순으로 선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지역경제과(061-270-8871)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지원사업들이 관내 조선업장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기 인력수급 및 조선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해남군, 골드키위 '해금' 본격 수확

'전국 최고 품질' 참다래 45농가 연간 500여t 생산

해남군 대표 과일 참다래가 수확을 시작했다.

해남 참다래는 따뜻한 해양성 기후와 일조량이 풍부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품질로 인정받고 있다.

해남군에서는 2022년 기준 45농가(39.6ha)에서 참다래를 재배, 연간 500여 t 가량을 생산해 13억 원 가량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특히 주 품종인 골드계통의 해금은 전남도농업기술원이 자체 개발한 국내 품종으로 당도가 높고 부드러운 맛으로 참다래 시장의 인기를 선도하고 있다.

해금은 당도가 16브릭스(Brix)이고 수확량도 1000㎡당 3000~3,500kg에 달해 농가소득면에서 다른 품종보다 경쟁력이 높다. 수확 시기도 빠른 편으로 시장을 선점하는 장점이 있다. 해금 품종은 10월 하순부터 11월 초까지 수확된다.

참다래는 비타민 C, 비타민 E, 식이섬유, 카르티닌 등 영양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면역력 증진과 항산화는 물론, 단백질 분해효소로 육류섭취시 결



해남군 산이면 진산리 한 농장에서 농부들이 참다래를 수확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들어 먹으면 좋은 과일로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이면 김정현씨는 "해남에서 생산되는 참다래는 기후가 온난하고 해풍을 맞고 자라 당도가 높고 품질이 우수해 소비자에게 인기가 좋다"며 "수입산에 비해 국내산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편으로, 제철맞은 참다래로 환절기 건강 챙기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영광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3년째 선정

영광군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하는 20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3년 연속 선정됐다.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은 주택과 상가 등에 태양광, 태양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군은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과 정부의 탄소중립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통한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했고, 3년 연속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지난해 1차 사업으로 영광읍, 군서면 등 2개 읍

면 458개소(45억원)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 완료했으며, 올해에는 백수읍, 흥농읍, 법성면, 영광읍, 군서면 등 5개 읍면 457개소(45억원)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약 85%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달 중순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3차 사업 공모를 위해 지난 3월 전문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총 사업비 37억원(국비 16억원)을 투입하여 2023년 2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영광=이준용 기자 jylee@kwangju.co.kr

섬 사람들이 만드는 '보이는 라디오'

신안 압해도 '보이는 라디오' 16일 첫 방송... '신안살이 몇 해인가요' 등 생생한 지역살이 공유

"신안 압해도 주민들이 만드는 보이는 라디오 많은 시청 부탁해요."

신안군 압해도에 살고 있는 젊은 주민들이 제작하는 '보이는 라디오'가 오는 16일 첫 전파를 탄다.

강미라씨 등 압해도 주민 18명이 직접 만들고 있는 방송 프로그램은 2개로 각각 '신안살이 몇 해인가요?'와 '동트리 마을학교 이야기'이다.

이들은 지난 10월 5일부터 매주 수요일 압해도 '문화지소 신안'에 모여 라디오 제작 과정을 학습하고 있다. 또한 대본, 연출, 진행, 기술 등으로 각자 역할을 나눠 세부 분야를 익히고 있다.

생생하고 다양한 지역살이 공유를 목표로 하는 만큼, 대본은 공동작업으로 완성했다. 주민들의 교육은 광주의 영상 전문집단이 담당했다.

'신안살이 몇 해인가요'는 신안 귀향·귀촌 이력이 평균 7~9년에 이르는 이들이 주축이 돼 만들고 있다. 이들은 사투리, 음식, 귀농, 도시생활에 대한 로망 등을 주제로 대본을 썼고, 자유로운 팟캐스트 형식으로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용은 귀농·귀어·귀촌에 대한 허심탄회한 경험담이 주를 이루 정취의 재미를 주는 것은 물론, 예비 귀촌인들에게도 큰 도움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동트리 마을학교 이야기'는 압해동초 학부모들과 돌봄강사들이 제작하고 있다. 이들은 초등학생들과 동트리 마을학교를 꾸리고 있는데, 이 학교는 양질의 프로그램과 구성원들의 탄탄한 유대감으로 정평이 나 있다. 라디오 제작진은 그간 마을학교를 가꿔온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예정이다.

16일 오후 6시 유튜브를 통해 연습방송을 라이브로 첫 송출한다. 이후 보안을 거쳐 11월 23일 오후 6시에 정식 본방송을 내보낼 예정이다. 방송은 영상 스트리밍 채널인 유튜브의 특징과 최근 추세를 반영해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진행된다.



라디오 수업을 듣고 있는 압해도 주민들.

압해도 '보이는 라디오'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2022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문체부가 올해부터 시행한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사업'은 문화 차원의 지역 균형 발전을 모색하는 사업이며, 신안군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전국 6개 지자체 중 한 곳이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